

CULTURE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생체기'

‘따로 또 같이’ 형태의 실험 수채화·추상전 동시 진행

김효삼 작가, 현재와 과거 주제로 갤러리 두곳 아크와 미노서 4일부터 15점씩 총 30점 선보여

한 작가가 과거와 현재라는 콘셉트로 두 개의 전시를 전혀 다른 두 공간에 동시에 여는 전시가 선보인다. 이는 하나의 전시도 버거워하는 현실 속 새로운 형태의 실험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전혀 다른 화풍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수채화가 김효삼씨로, 그는 아크갤러리에 현재 시점의 작품들을, 미노갤러리에 과거 시점의 작품들을 각각 출품한다. 이 두 곳 모두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두 곳 모두 나란히 15점씩이다. 아크갤러리에 80호와 50호, 30~10호 등 다양한 사이즈의 작품들이, 미노갤러리에서는 30호를 포함해 대부분 20호 10호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아크갤러리에서의 전시는 그의 열다섯번째 순서다. 미노갤러리는 개인전 순번에 넣지 않고 열리는 전시다.

김 작가는 광주화단 수채화계의 중견이다. 수채화단에서 그의 화화는 중요한 지점을 이룬다. 40여년의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조진호 전 광주시립미술관장과 함께 광주전남수채화협회가 태동하는데 산파역할을 자임했다. 개인전만 해도 수채화로 열네번 관람객들을 만났을 정도로 작품에 대한 애인이 깊다.



김효삼 작가

3년 전에 열린 제14회 전시에서는 ‘당신의 그림자’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며 성찰을 담아 냈었다. 그가 내세운 과거전은 수채화 작품 위주로, 현재전은 추상작품들로 각자 꾸렸다. 그에게 추상전은 회화 생활을 통틀어 처음 마련된 자리다.

이번 전시는 구상에서 추상으로까지 스펙트럼을 넓힌 그의 현재적 작업들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로 손색이 없다.

그는 2년 전부터 추상의 즐거움에 빠져 일상 틈틈이 추상 작업을 하며 50여점의 작품을 완성해냈다. 이 작품 중 상당수를 ‘생체기’라는 연작으로 선보인다. 전시 때마다 수채화가 자리잡았던 그동안의 도록 앞면과 뒷면은 추상화가 자리를 잡았다.

작품은 크지 않다. 대개 10호 정도의 ‘생체기’ 연작들이 출품된다. ‘생체기’ 역시 성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생체기 연작 사이로 다른 지점의 작품이 보인다. ‘부르심’이 그것이다. 부르심은 모친

께서 변한 중이었을 때 잠시 오지 않아 병원에서 작업한 것으로 그에게 사연이 깊은 작품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예전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성찰의 답변들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 앞서 미술작업을 하는 동안 지금이 어찌든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로 추상작업에 대한 즐거움을 들려줬다.

그는 “작가의 도리로서 새로운 작업 탐구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면서 “현재와 과거로 나눠 한꺼번에 전시를 하는 데는 제 작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구상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데 비해 추상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좋은 것 같다. 추상을 해보니까 표현방식이나 효과 등이 너무 기존의 회화와는 너무 달랐다”고 밝혔다.

김효삼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 수채화 개인전 14회를 비롯해 아트페어개인부스전 8회, 2인전 4회, 단체부스전 5회를 포함해 단체인 300여회에 출품했다. 대한인국미술대전과 광주전남수채화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롯데문화센터 강사를 맡고 있다. 현재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수채화연구실을 마련,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트로트 감성 문화상품 어때요 ACC재단, ‘애호가 편지’ 연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선옥)은 최근 개막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설기획전시 ‘애호가 편지’와 연계한 문화상품 4종을 개발해 출시했다.

‘애호가 편지’는 트로트와 뽕짝의 장단을 담고 있는 대중음악과 이와 유사한 아시아 음악 등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자취를 은유적으로 살펴보는 매체 예술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전당에서 수집해 온 아시아의 대중음악 자료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음반사인 오아시스레코드가 보유하고 있는 음반과 계약서 등의 기록 자료도 만날 수 있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상징하는 그림 자료를 활용해 ‘활판 인쇄 엽서(레터프레스 카드)’, ‘필기구 고정 매듭(스트랩 펜 홀더)’, ‘소창 손수건’, ‘한지 부채’ 등 4종의 상품을 개발했다.

활판 인쇄 엽서는 나무나 금속 활판을 조합해 인쇄기에 넣고 압력을 가해 잉크가 판면에 부착되게 하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제작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한 장씩 작업함에 따라 색감 표현이 섬세하고 엽서 표면에 독특한 질감이 느껴진다.

소창 손수건은 강화 소창의 명맥을 잇고 있는 ‘연순직물’의 소창에 출결의 자수를 누벼 멋스러움을 더했다.

한지 부채의 경우 판화 인쇄 기법 중 하나인 실크 스크린(Screenprinting) 방식으로 한지에 염료를 입혔다. 이어 남원 최수봉 장인이 만든 손잡이와 부채살을 붙여 부채를 완성했다.

김선옥 사장은 “트로트의 아련하면서도 매끈한 감성을 문화상품을 통해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당 콘텐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애호가 편지’ 연계 문화상품 4종은 전당 문화상품점 들라(DLAC) 과 들라 누리집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클래식 선율 속에 감성 어우러진 ‘인문학 리사이틀’

‘음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4월 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세미나 형식 음악회 시리즈... 피아니스트 허효정 강연·연주 선행

클래식 음악의 탄생과 가치를 들여다보는 인문학 리사이틀 음악회가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허효정의 인문학 리사이틀 VI ‘음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가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6년간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공연되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인문학 리사이틀 시리즈로, 클래식 음악의 탄생에 대한 인문학 강연과 연주를 함께 선보이는 세미나 형식의 음악회로 꾸며진다.

피아니스트 허효정이 18~19세기 사료를 바탕으로 탐구해온 음악역사학 연구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며, 연주를 통해 지성과 감성이 어우러진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시즌에서는 베토벤이 활동하던 약 30년의 기간 동안 당대 청중의 예술적 판단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 그것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 형성에 어떠한 밑바탕이 됐는지 다룬다. 관련 작품으로 C. P. E. 바흐의 ‘론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6번, 27번, 32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강의를 이끌 허효정은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와 인문대학 미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동 대학원 재학 중 관정이중환 교육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웨스트민스터 쿼이어 칼리지에서 피아노와 종교음악 석사,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에서 연주자 디플로마,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에서 합창 지휘 석사 및 피아노 박사, 서울대에서 서양음악학 박사(음악대학원 수석)를 받았다.

전문연주자로서 ‘전통 레퍼토리의 새로운 해석’, ‘음색의 아름다움’이라는 평(New York Concert Review)을 받으며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 독주회를 연 그는 미국 스타인웨이 갤러리,

달튼 센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이탈리아 볼로냐 파바 궁전,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무대에서 연주를 선보였으며, 뉴욕 콘서트 아티스트 교향악단(NYCA 오케스트라), 헝가리 Szolnok Symphony 오케스트라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캐나다 작곡가 커틀랜드 애드셋의 합창곡 ‘The New Commandment’를 헌정 받고 지휘자로서 곡을 세계 초연했으며, 작곡가 이신우의 ‘피아노를 위한 코랄판타지 2번’을 세계 초연하고 ‘피아노를 위한 코랄판타지’ 전곡을 녹음해 폴란드 DUX 사 레이블로 출시, 음반 발매에 맞추어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5개 도시에서 순회 연주회를 했다.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교대 강사이자 조선대 초빙객원교수, 호신대 초빙교수,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선대 음악교육과 조교수이자 ㈜오르투스 아티스트로 교육, 연구 및 연주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 초대.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Advertisement for DOCU Design, featuring the headline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brochures, newsletters, and corporate identity design.